광주일보 Weekend

1 제18252호 2판
2008년 12월 27일 토요일

'명품 그룹' 다시 뭉쳤다

김종서, 부활과 22년만에 재결합… 이효리, 핑클과 3년만에 깜짝 공연

〈김종서〉
〈핑클〉
〈공일오비〉
〈카니발〉

오랜만에 함께 뭉친 원년멤버들이 환상적인 호흡으로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카리스마 록커에서 '예능 늦둥이'로 주목받고 있는 가수 김종서가 22년 만에 록밴드 부활과 전격 재결합, 내년 2월경 새 앨범을 발표한다. 또 오는 31일 열리는 'THE BEST & LEGEND 김종서!' 콘서트에 부활의 리더 김태원이 게스트로 출연해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은 이미 지난 19일에도 '이하나의 페퍼민트'(KBS)에 함께 출연, 20년 동안 음악적 교감을 나눈 동료로서 멋진 무대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었다.

김종서는 그룹 시나위 출신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부활의 초대멤버로도 활동했었다. 부활의 전신인 디 엔드 시절부터 합류해 부활 멤버로 활약하다 지난 1986년 시나위로 옮겼고 그 빈자리를 이승철이 메운 것. 이후 부활은 이승철이 합류한 뒤 첫 앨범 '희야'를 내고 큰 인기를 모았으며, 김종서 역시 시나위를 거쳐 솔로로 데뷔한 뒤 '겨울비' '아름다운 구속' 등을 잇따라 히트시키며 성공가도를 달려왔다.

김종서 측에 따르면 "김종서씨와 부활이 함께 앨범을 내게 됐다"며 "내년 2~3월경 앨범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텅 빈 거리에서' '이젠 안녕' 등 1990년대 가요계에 주옥같은 히트곡들을 탄생시켰던 싱어 송 라이터 윤종신과 그룹 공일오비가 새 앨범과 콘서트로 오랜만에 가요 팬들을 만나고 있다.

방송에서 재치있는 예능인으로 맹활약중인 윤종신 최근 그룹 공일오비 출신 정석원과 손잡고 11집 '동네 한바퀴'로 가수로 돌아왔다. 지난 2005년 발매한 10집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정석원이 윤종신의 앨범 제작에 참여한 것은 지난 3집 '소로우' 이후 16년 만이며 이번 앨범에는 서정적인 '윤종신표 발라드'를 느껴볼 수 있는 노래 10곡이 수록됐다.

윤종신은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공일오비의 연말 콘서트 '아주 오래된 연인들'에도 힘을 보탠다.

'국민요정' 그룹 핑클이 이효리 첫 단독콘서트를 통해 오랜만에 한 무대에 섰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천하무적 이효리' 콘서트에 성유리·옥주현·이진이 게스트로 출연, '영원' '루비' 등을 부르며 관객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특히 올 해는 핑클이 데뷔 10주년을 맞은 해로 이날 깜짝 무대의 의미는 더했으며 핑클 멤버들이 무대에 함께 서는 것은 3년 만이다.

가수 이적과 김동률은 프로젝트 그룹 카니발의 콘서트로 11년 만에 뭉쳤다. 이들은 지난 13, 14일 서울에서 빅밴드, 오케스트라, 국악이 어우러진 데다 360도 회전하는 웅장한 무대와 수준높은 사운드를 내세운 '명품 공연'을 선보여 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음유 시인' 루시드 폴 광주 공연 내년 1월 3일 5·18 기념문화센터

독특한 감성의 노래로 20~30대 음악 마니아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루시드 폴이 광주 공연을 갖는다. 2009년 1월 3일 오후 7시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최근 스위스 로잔 공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 더욱 화제를 모았던 루시드 폴(본명 조윤석)은 시를 연상시키는 노랫말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주를 이루는 곡들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뮤지션.

이번 광주 공연에서는 루시드 폴의 감성을 단번에 느낄 수 있는 히트곡 '오, 사랑'을 비롯해 '새', '국경의 밤' 등 지금까지 발표한 음반에 실렸던 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밴드 없이, 기타 하나에 맞춰 진행되는 덕에 그의 진한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무대다.

1993년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수상한 루시드 폴은 인디밴드 '미선이'로 활동하며 포크 음악 팬들이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며 2001년 '맑고 투명한 가을'이라는 뜻을 가진 원맨 밴드 '루시드 폴'로 활동중이다.

티켓 가격 4만 4천원, 3만 3천원.

문의 051-903-99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2 BOX OFFICE

영 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과속 스캔들	59만7천611	260만2천313
2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35만4천972	43만5천866
3	벼랑 위의 포뇨	35만4천800	42만4천720
4	트와일라잇	22만5천783	101만2천534
5	예스맨	20만5천427	26만9천670
6	오스트레일리아	16만7천891	76만5천359
7	달콤한 거짓말	15만5천244	22만5천684
8	미인도	9천580	235만6천930
9	트로픽 썬더	3천225	6만7천252
10	이스턴 프라미스	2천740	1만3천630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시청률	
1	너는 내운명	KBS1	37.4
2	에덴의 동쪽	MBC	31.0
3	일요일이 좋다 1부	SBS	29.1
4	내사랑 금지옥엽	KBS2	24.2
5	개그콘서트	KBS2	22.5
6	유리의 성	SBS	22.2
7	가문의 영광	SBS	21.7
8	아내의 유혹	SBS	21.0
9	며느리와 며느님	SBS	18.8
10	바람의 나라	KBS2	18.5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액션
2	미이라 3:황제의 무덤	액션
3	울학교이티	코미디
4	쿵푸팬더	애니메이션
5	원티드	스릴러
6	맘마미아!	뮤지컬
7	테이큰	스릴러
8	핸콕	액션
9	인디아나존스:크리스탈해골의 왕국	액션
10	영화는 영화다	액션

〈자료제공:으뜸과 버금〉

가 요

순위	제 목	가 수
1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
2	붉은 노을	빅뱅
3	러브119	케이윌
4	마이 스타일	브라운아이드걸스
5	어제보다 오늘 더	김종국
6	매력쟁이	린
7	노바디	원더걸스
8	유 어 맨	SS501
9	레이니즘	비
10	이런 여자	이수영

〈자료제공:멜론〉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晧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편집부 2200-629
정치부 2200-616
경제부 2200-617
사회1부 2200-618 〈팩스 222-4267〉
사회2부 2200-619 〈팩스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육팀 2200-627
사진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팩스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팩스 227-9500〉
디자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팩스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팩스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10,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BS
New Start!
2009!
CBS 스키캠프
The Call
CBS